

보도시점 : 2023. 4. 10(월) 06:00 이후(4.10(월) 석간) / 배포 : 2023. 4. 7(금)

건설기계 임대차·조종사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합니다.

- 4월 10일 타워크레인 부문부터 우선 서비스
- 6월말까지 건설기계(27종), 스마트안전장비 등으로 확대

□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,400여억원*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·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.

* 건설산업종합정보망(Kiscon, '22년 기준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, 조종사 구인·구직을 위한 ‘^{가칭}건설기계 e-마당’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원희룡 장관은 ‘건설사·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게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 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·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’이라며, ‘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’이라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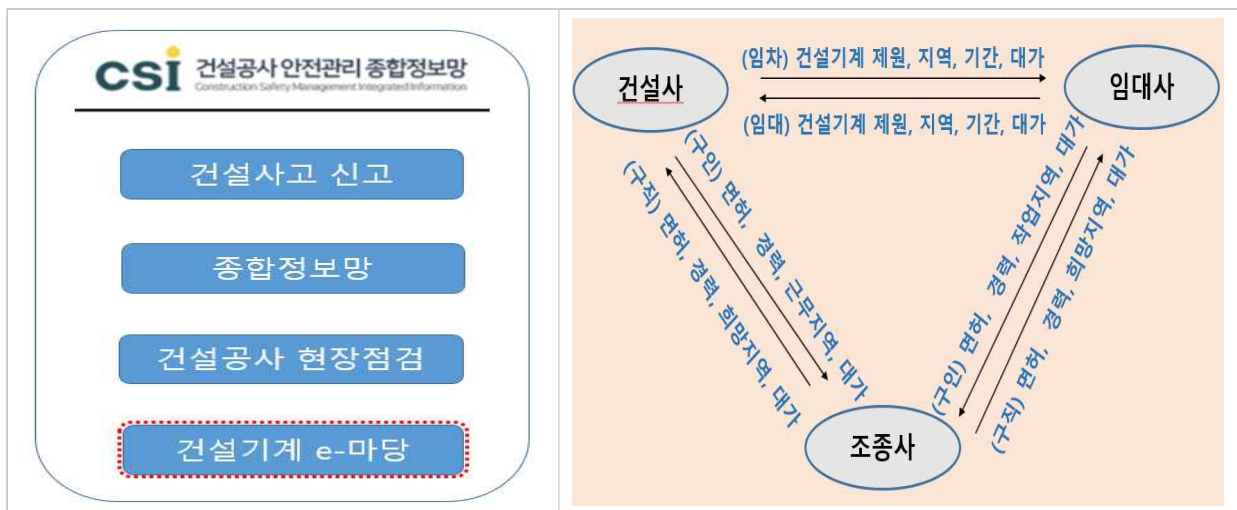
○ 그간,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,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.

□ ‘건설기계 e-마당’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(www.csi.go.kr)에 구축되었으며,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, 건설기계 임대사·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, 임대 및 조종사 구인·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(모바일 웹)·컴퓨터(PC 웹)로 무료 검색·신청할 수 있다.

□ 한편, 4월 10일 운영을 시작하는 타워크레인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우선, 타워크레인 임대차의 경우 ‘건설사·임대사’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, 작업 지역·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·임대 정보를 등재(제공) 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,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.
-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‘건설사·임대사’와 ‘조종사 개인’이 각각 조종면허,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·구직 정보를 등재(신청) 하면 ‘건설사·임대사’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, ‘조종사 개인’은 ‘건설사·임대사’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.

<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·활용 개념도 >



□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(27종)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하는 한편,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성훈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	유연형 (044-201-3558)

